

地理學에 있어 空間概念의 問題에 對하여

柳 佑 益

《目 次》

- | | |
|---------------------|-----------------|
| 1. 空間概念의 여러 側面 | 2. 社會地理學과 空間概念 |
| (1) 知賞對象으로서의 地表의 一部 | (1) 社會地理學과 概念構成 |
| (2) 人間活動의 環境 | (2) 社會地理學의 空間概念 |
| (3) 文化景觀 | (3) 適用의 實際—給養機能 |
| (4) 地表의 延長 | 3. 結 論 |
| (5) 새로운 試圖 | |

1. 空間概念의 여러 側面

故 陸芝修教授는 “地理學은 雜學이다” 라고 하여 當時 入門者로서의 筆者를 몹시 當황하게 한 적이 있다.¹⁾

오늘날 學問의 細分化 추세에 비추어 地理學이 갖는 한 特徵은 그 基本觀點의 極端的인 複數性(pluralität)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地理學과 같이 그 起源이 오랜 學問의 分野에 있어서는 어찌면 發達이 가져온 當然한 歸結로 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學問은 그 自體가 갖는 性質上 連續性과 變化라는 相反되는 두 가지 屬性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 傳授의 方法에 있어 人間을 媒體하는 以上 한 世代로부터 다음 世代로 그 同質性을 이어 나가야 하게 마련이며, 둘째로 學問이 認識能力의 向上이란 點에서 볼 때 과거로부터 넘겨 받은 觀點과 方法 위에 끊임 없이 修正과 補完이 이루어져야 할 것 또한 必然의이다. 셋째로, 各 時代의 社會相에 따라 學問에

提起되는 問題의 性質과 그 應用의 範疇가 또한 끊임없이 變遷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變化發展하는 學問의 觀點과 方法은 거기에 使用되는 專門用語 및 그 概念의 內容에도 變化를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用語의 概念規定은 흔히 한 時代의 研究方向을 含蓄의으로 示唆하기도 한다. “人間과 自然”, “景觀(Landschaft)”, “地域(Region)”, “中心地(Zentrale Orte)”, “擴散(Diffusion)”, “到達距離(Reichweite)” 등의 用語와 이를 中心으로 한 研究傾向의 發達을 例로 들 수 있겠다.

地理學內에서의 이러한 觀點의 固守와 變化를 둘러싼 問題는 오늘날 어떤 意味에서 方法論의 百花滿發의 時代를 불러 온 한편, 이로 인해 學問의 同質性이 三分五裂되는 위험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地理學의 本質에 對하여 明瞭한 輪廓을 提示하기 위한 努力은 Vidal de la Blache²⁾, Hettner³⁾, Hartshorne⁴⁾ 등 後期 古典의 方法論者들로부터 近來의 Bobek⁵⁾, Bunge⁶⁾, Bartels⁷⁾, Uhlig⁸⁾ 등에

1) 1967學年度 1學期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經濟地理學 講義 初頭に 陸教授는 이 講義를 마치지 못하고 他界하셨다.
 2) Vidal de la Blache, P., 1922, *principles de la géographie humaine*, Paris. (Neuaufgabe 1955).
 3) Hettner, A., 1927, *Die Geographie ihre Geschichte, ihr Wesen und ihre Methoden*, Breslau.
 4)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 Critical Survey,” *Annals of A.A.G.*, vol 29.
 5) Bobek, H., 1948, “Stellung und Bedeutung der Sozialgeographie,” *Erkunde*.
 6) Bunge, W., 1966, *Theoretical geography*, Revised ed.,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C. General and Mathematical Geography*, 1.
 7) Bartels, D., 1968, “Zur wissenschafts theoretischen Grundlegung einer Geographie des Menschen,” *Beiheft z. Geogr. Zschr.*, vol. 19.
 8) Uhlig, H., 1970, “Organisationsplan und System der Geographie,” *Geoforum*.

이르기까지 거듭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이러한 地理學의 複數性이라는 어려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試圖들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試圖들이 結實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概念의 分명한 規定이 前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地理學의 關鍵이 되어온 “空間(Raum)” 概念의 多様な 側面을 살펴 整理함으로써 敢히 그 統合(Integration)의 可能性을 알아보고자 하기에 이른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空間概念은 地理學의 發達史的 觀點에 있어서나 그 사용의 빈도에 있어서나 如何間 地理學에서 中心的 位置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이 概念은 地理學에 있어 方法論의 또는 目的論의 代名詞로 相當히 막연히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空間概念 規定의 多様な 內容을 주로 人文地理學의 發達史에 비추어 크게 다섯가지 側面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知覺對象으로서의 地表의 一部

“空間”이라고 하면 우선 日常用語에서 使用되는 境遇와 같이 視覺的인 面이 두드러지게 內包되며 따라서 이 境遇의 空間은 ‘限定된 經驗世界의 一部 또는 全部로서의 地表’를 意味하게 된다. 地理學의 ‘宇宙論의 時代(kosmographische Phase)’로 불리우는 當時의 地理學은 따라서 이러한 經驗世界의 記述(Deskription)을 課題로 하였다. 地表의 어느 部分에 對한 ‘全體의 特性’을 ‘한눈에’ 파악하고 地表 各 部分에 對한 相異性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地理學者의 主된 任務였다. 이 時代를 代表하는 地理學者로 우리는 地表空間의 全體의 秩序와 調和에 執着한 Ritter와 Humboldt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全體의 秩序로서의 知覺的 空間概念은 훗날 獨逸地理學에 “景觀(Landschaft)”이라는 獨특한 用語를 등장시키고 발전하게 된다.

(2) 人間活動의 空間

空間에 對한 두 번째 解釋을 一次的인 經驗的 總體를 人間集團과 그들의 生活環境으로 나누어서 對峙시키는 關係에서 出發한다. 即 人間과 自然의 相互作用(Interaktion)에 있어 自然쪽을 環境=空間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空間概念에 따른 觀點의 初期에는 그 相互作用體系에 있어 人

間의 存在와 活動이 自然的인 條件에 依해 支配된다는 Ratzel⁹⁾을 中心으로 한 自然決定論(Naturdeterminismus)이 台頭되었다. 이러한 立場은 當時 地理學에 Darwin의 進化論의 影響을 깊이,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確率의 法則性은 外面한 채,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어 Vidal de la Blache로 代表되는 프랑스 地理學者를 中心으로 이에 맞서는 可能論(Possibilismus)이 주장되어 自然環境에 對한 人間의 存在 및 活動의 能動的 可能性이 強調되었다. 이러한 關係論的(beziehungsweise) 接近方法은 19세기 末頃에 風靡하여 人間이 그에게 賦與된 自然的인 條件들과의 相互作用에 있어 어떠한 制限과 可能性을 갖는가를 因果關係의 으로 밝히는 데 地理學의 重點을 두게 하였다.

또한 本來 自然과 人間生活에 關한 因果論의 一般法則의 추구를 目的으로 했던 이런 立場은 다른 한편으로 地理學의 關心의 重點을 自然과 人文으로 兩分시킴으로써 地理學 自體에 구조적 二重性(Dualismus)을 招來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이 觀點은 相互關係에 있어 人間活動 쪽에 關心을 기울여, 自然의 強制力에 依한 人間活動의 絕對的 限界보다는 環境의 彈力성과 適應 潛在力을 檢定하는 段階에 이르고 있다. 即 社會的 集團의 自己實現 乃至 生活欲求에 對한 自然條件의 適應可能性이 研究의 中心問題로 되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環境의 均衡 또는 秩序”, “汚染의 限界”, “土地 및 氣候의 改良可能性” 등 人間活動을 위한 最適空間의 造成問題가 이 接近方法의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의 變化는 한편으로는 技術의 發展에 따른 人間의 自然環境에 對한 作用能力(變更, 保全 및 破壞)의 向上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自體가 이미 環境의 主된 要素로 認識되기 始作하여 研究의 主要關心이 人間의 活動 쪽에 기울어진데 原因이 있다고 보겠다.

地理學 및 그 인접과학에 있어 生態學的 接近方法 또한 人間과 그의 相對者로서의 環境間의 交互作用(Wechselwirkung)에 主要關心이 주어진다. 點에서 이 範疇의 空間概念을 따른다고 보겠다. 生態學的 接近方法(ökologische Ansätze)을 다시 人文生態學的(humanökologisch) 立場과

9) Ratzel, F., 1909, *Anthropogeographie*, 2Bde., Stuttgart. (1. Auflage, 1882/1891)

文化生態學的(kulturökologisch) 立場으로 나뉘어져 前者가 自然의 人體에 對한 直接的인 作用에 關心을 갖는다면 後者는 行動性向과 自然現象을 區分하여 보려 한다. 生態學的 接近方法에 先驅的 役割을 한 Haeckel¹⁰⁾의 概念構成(Oikos=Haus)을 따르면 環境과 人間은 內容物을 갖는 하나의 收容體로 해석되며 따라서 이 경우의 空間에 있어서는 그 '너비'(幅)가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相對者를 內包한다는 觀念이 重要하게 된다.

(3) 文化景觀

前述한 地理學的의 關係論의 時代(beziehungsweise Phase)로부터 다시 全體的 空間의 相에 눈을 돌려 地理學에 形態論의 時代(morphologische Phase)를 연 것은 Schlüter¹¹⁾의 文化地理學과 北美쪽에서 이를 傳承한 Sauer¹²⁾의 景觀形態論의 觀點이다.¹³⁾

Durkheim¹⁴⁾의 物質的 基體(materielles Substrat)와도 內容上 一脈上通하는 이 文化景觀으로서의 空間概念은 自然環境 또는 自然景觀(Natur-landschaft) 위에 加해진 人間作用이 具體化한 結果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觀點은 人間의 活動이 自然環境 위에 부가되는 面, 예를 들어 聚落 交通 등을 強調한 點 外에는 亦是 經驗的 對象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點에서 前述한 첫번째 知覺 對象의 總體로서의 空間概念과 같은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分析科學의 理論에서 볼 때 景觀概念은 地理學에서 史的一發生學的 接近方法을 발전시킨 한편, 操作的(operative) 研究方法의 발달은 오히려 沮喪하였다고 보겠다. 結果적으로 當時의 地理學的 研究는 地表의 어느 部分에 對해 卓越한 事象을 體系에 맞추어 記述하는 地誌의 記述에 滿足하여야 했고 아니면 아주 景觀論의 空間概念을 피해서 所謂 一般地理的 問題에 集中하였다. 地誌의 寫實的 記述은 勿論 假說을 法則으로 證明하여 豫測의 陳述을 可能하게 하는 오늘날의 科學理論의 原理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學校教育에 있어 그 意義

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地誌的 內容의 體系化를 主導한 功과 다른 한편으로는 經驗的 研究를 爲한 豫備知識을 提供함으로써 理論的 假說의 樹立을 促進한 價値는 正當한 評價를 받아야 할 줄 안다. 단지 問題는 地理學이 現代의 分析的 科學으로 발돋움하고자 할 때 이러한 位置에만 머물러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最近의 社會批判論의 地理學者들에 依해 認識空間의 概念이 다시 하나의 接近方法으로 主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위에서 말한 批判을 克服하고 地理的 思想體系를 발전시켜 새로운 개념논쟁에서 그에 相應하는 位置를 획득할 수 있다면 肯定的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地表의 延長

空間에 對한 네 번째 概念規定으로는 地理學의 全發展過程을 통해 一般적으로 通用되어 온, 그러나 그 有用性이 再發見된 지가 오래지 않은, '事實의 地表上的 延長'을 들 수 있다. 다른 概念과 比較하여 幾何學的 또는 計量的 空間概念으로 特徵지을 수 있는 이 觀點은 1950年代 以後의 北美 및 北歐를 先頭로 한 研究方法의 客觀化 努力과 關聯지어 理解할 수 있다. 即 이는 地表의 一次元的인 秩序를 計量的 距離의 觀點에서 파악함으로써 地理學에 分析的 方法을 導入하게 한 것이다. 이 概念은 크게 나누어 첫째 事象의 地表上에서의 位置 및 分布의 秩序와 이에 關한 理論(choristische Prinzip)과, 둘째 地表上的 距離에 따라 觀察對象間에 作用하는 關係에 관한 모델 및 理論(chrologische Prinzip)의 兩側面에서 論理的 展開를 可能하게 한다. 이러한 空間에 對한 分類의(klassenlogisch) 및 關係의(relationenlogisch) 論理는 곧 이어 발달過程의 範疇(prozess Kategorie)를 취급하기 위해, 動的인 모델의 개발을 위해 時間次元을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地理學은 '地表現象을 構造的(choristisch), 機能的(chorologisch), 그리고 史的一發生的(zeitwissenschaftlich)으로 記述함으로써 그 關聯性的

10) Haeckel, E., 1866, *Generelle Morphologie der Organismen*, Berlin.

11) Schlüter, O., 1906, *Die Ziele der Geographie des Menschen*, Antrittsrede, Munich.

12) Sauer, C.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 pp. 19~53.

13) 獨逸語에서 景觀(Landschaft)이란 用語는 '可視的 地表의 全體的 印象'(英: landscape) 또는 單純히 '限定된 地表의 一部(英: region)을 意味한다.

14) Durkheim, E., 1899, "Morphologie sociale," *L'Année Sociologique*, Paris.

法則을 밝히는 學問'이라고 한다.¹⁵⁾

空間을 計量的 距離로 파악하는 모델수립의 古典의 例는 Thünen¹⁶⁾의 '孤立國 모델'이나 Christaller¹⁷⁾의 '中心地階層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計量的 空間모델의 추구는 1960년대 이후 地理學 및 인접 사회 과학에서 地域研究 (regional studies)라는 旗幟 아래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¹⁸⁾ 實例로 gravity model, potential model, 最適運送모델, location allocation model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最近의 研究傾向은 여기에 時間要素를 導入함으로써 理論의 수립에서 經驗의 分析 및 그 simulation에 이르기까지 多方面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計量的 分析方法 및 數理的 記述概念을 바탕으로 理論的 模型을 樹立해 나가는, 특히 北美 地理學者들이 중심이 된, 所謂 計量的 地理學의 傾向은 오늘날 地理學의 研究에 있어 다음 두 가지 點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첫째, 方法論적으로 合理的인 思考의 手段을 提供함으로써 空間概念에 客觀性을 賦與하고 地理學의 分析科學의 基礎를 다지고 있다.

둘째, 무성한 數學的 또는 統計學的 模型과 理論은 다른 한편으로 個別問題에 對한 熟考를 소홀히 하게 함으로써 實質內容이 빈약한 연구들을 내어놓게 하고 있다. '數學—아니 더 正確히 말해 단지 統計學—의 地理的 研究에의 侵犯'¹⁹⁾이라고까지 하여 傳統的 方法論者들의 計量的 方法에 對한 批判對象이 되고 있는 이 두번째 側面은 最近 後者로 하여금 시스템理論(System Theorie)를 바탕으로 '內容있는 理論'의 樹立을 試圖하게 하고 있다. 即 複合的 內容을 갖는 觀察對象은 要素(Element)와 그 屬性 및 그들간의 關係(Relationen)로 構成되는 폐쇄된 모델에 의해 檢定되게 된다. 여기서 地球生態적 시스템(geoökosystem)과 社會的 시스템(Gesellschaftssystem)의

兩面을 共有하는 地理學으로서는 다시 한번 理論 樹立의 二重性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5) 새로운 試圖

마지막으로 批較的 새로운 空間概念은 上述한 數量的 空間概念의 限界性을 批判하는 데서 出發한다. 即 物理的 距離로 計量化된 空間概念에 基礎한 모델로서는 人間行動의 場으로서의 '社會的 空間'을 도대체 充分히 說明해낼 수 없다는 主張이다.

人間은 그들의 活動을 그들이 處한 狀況과 價値體系를 바탕으로 '決定'하게 되는데 이 때 그들이 갖는 認識된 空間相(cognitive spatial images)에 따라 結果적으로 나타나는 行動樣式에 差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問題는 前述한 物理的 距離에 의해 一律적으로 파악된 空間이 多樣한 社會的 距離의 크기에 의해 얼마나 歪曲되며 그로써 얼마만큼의 陳述能力을 喪失하게 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社會的 相互作用의 抵抗을 測定하고 이의 地圖化를 試圖한 Tobler²⁰⁾ 및 Hägerstrand²¹⁾ 등과 遠近原理(Näheprinzip)을 내세운 Bunge²²⁾ 혹은 物理的 遠近과 社會的 遠近의 隔差를 強調하고 數理的一유클리드적 空間概念에서 벗어나 動機中心의 相互作用 및 行動空間에 關한 多次元的 模型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 Olsson²³⁾ 등이 이러한 進步的 概念 해석의 先驅의 主唱者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하면 mental map의 體系의 分析을 통하여 파악되는 機能的 距離²⁴⁾는 人間의 空間的 行動에 對한 한 決定的 變數로서 이것은 단지 극히 制限된 限界狀況에서만 物理的 距離와 一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方法論上 問題가 되는 것은 이 社會的 또는 機能的 距離를 어떻게 操作化(operationalisieren)할 수 있으며 이에 作用하는 數 많은 變數

15) Bartels, D., 1970, *Wirtschafts und Sozialgeographie* (Hrgb.), Köln & Berlin, pp. 13~45.

16) Thünen, J. H., 1826,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Hamburg.

17) Christaller, W., 1933, *Der zentrale Orte in Süddeutschland*, Jena.

18) cf. Bunge, W., 1962, *Theoretical geography,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C*, 1.

19) Reynaud, A., 1974, "La géographie entre le mythe et la science," *Travaux de l'Inst. de Géogr. de Reims*, pp. 18~19.

20) Tobler, W.R., 1967, "Of maps and matric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7.

21) Hägerstrand, T., 1967, *Innovation Diffusion as a Spatial process*, Chicago (original: Lund, 1953).

22) Bunge, W., 1962, *Theoretical Geography, Lund studies in Geography C, General and Mathematical Geography*, 1.

23) Olsson, G., 1965, "Distance and human interaction: a migration study," *Geogr. Annlr. Ser. B.*, 47.

24) Gould, P.R., 1966, *On Mental Maps*, Michigan Interunivers. Community of Math. Geogr., Discussion Paper, No. 9.

들의 크기를 어떻게 客觀化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進歩的인 經驗空間의 概念 해석은 地理學에서 이제 그 有用性이 檢定되기 始作한 初期的 段階에 있다.

위에서 우리는 空間概念이 주로 人文地理學의 研究方法와 關聯되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를 綜合하면 아래와 같이 圖式化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人文地理學의 發達과 空間概念

年 代	1890	1910	1930	1950	1970
地理學의 發 達	地 理 學 (Geographie)	人 類 地 理 學 (Anthropogeographie)	文 化 地 理 學 (Kulturgeographie)	人 文(經濟)地理學 (Human (Wirtschafts) geographie)	社 會 地 理 學 (Sozialgeographie)
方法論的 時代區分	宇 宙 論 的 (kosmographisch)	關 係 論 的 (beziehungswissenschaftlich)	形 態 論 的 (morphologisch)	機 能 論 的 (funktional)	構 造-發 達 論 的 (strukturell-prozessual)
空間概念	地 表 의 一 部	環 境	文 化 景 觀	計 量 的 距 離	社 會 的 距 離

위 도식에 대해 한가지 強調할 것은 空間概念의 發達史의 側面이 時代的으로 區分되었다고 해서 어느 한 概念이 어느 時代에 시작되어 어느 時代에 끝나고 다음 概念으로 넘어가는 排除的인 時代區分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러한 概念規定上의 特徵이 그 時代의 特 징적 연구 傾向과 어떻게 結付되어 있나를 強調하여 나타내 보이고자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오늘날의 形便은 오히려 여기서 다른 다섯 가지 범주의 공간개념 모두가 混用되고 있다고함이 옳을 것이다. 特히 韓國에서의 地理學 研究論文의 경우는 空間概念의 規定에 關한 限 可謂 百家爭鳴式이라고 하겠다.

2. 社會地理學과 空間概念

(1) 社會地理學의 概念構成

社會地理學이 하나의 새로운 研究分野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人文地理學의 研究領域內에서 社會的 要素를 強調한 것이냐²⁵⁾ 는 아직 잘라 말할 수 있는 段階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약 30년간의 이러한 연구경향이 그 어느 경우이든 前述한 空間概念의 해석 및 그와 關聯된 研究方法에 있어 새로운 한 觀點을 代表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地理學에 새로운 活氣와 可能性을 주고 있음이 事實이다.

社會地理學의 概念構成의 礎石이 된 思想은 地

理學史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 Vidal de la Blache의 生活形態集團(genres de vie)의 概念이다. 그는 “人間集團의 地理的 環境에 對한 積極的 適應(adaptation)의 形態”를 強調함으로써 “人間은 自然에 내던져졌고 그에게 주어진 自然環境으로서의 空間이 그의 活動을 規制한다”는 環境決定論的 思想을 克服하고 人間을 自然의 被造物인 同時에 그 改造者로 昇格시켰다. 그는 그의 名著 “Principes de la géographie humaine”에서 이러한 人間의 自然條件에 對한 能動的 適應의 幅과 形態가 社會的 條件에 關聯되며 이는 個人이 아닌 人口의 集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이 生活形態의 集團을 記述하여 밝히는 것이 地理的 分析의 課題라고 함으로써 이미 오늘날의 社會地理學의 問題提起와 概念上 事實上의 接近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adaptation”, “genres de vie”, “groupe” 등 그의 主要 概念들은 아직 精密한 內容規定과 方法論的 證明의 段階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그후 佛蘭西 地理學者들에 의해 地域研究論文(regional monographien)에 傳承된다. 特히 Demangeon²⁶⁾ 같은 이는 地理學을 ‘地理的 環境에 對한 人間集團의 關係를 研究하는 學問’이라고까지 하여 人間集團의 空間活動의 重要性을 力說하였다. 그러나 戰後 프랑스 地理學者들은 독자적인 經驗적 社會科學으로서 社會學的 概念構成을 크게 導入하는 “géographie sociale”를 주장하고 나서거나 아니면 英美系統의 “human

25) Bobek, H., 1961, “Über den Einbau der sozialgeographischen Betrachtungsweise in die Kulturgeographie,” *Dt. Geographentag, Köln.*

26) Demangeon, A., 1947, *Problemes de la Géographie Humaine*, Paris.

geography”에 接近함으로써²⁷⁾ Vidal de la Blache의 概念에 對한 方法論的 補完發展은 더 이상이 큰 進前을 보지 못 하였다.

對照의 으로 같은 時期에 獨逸地理學에서는 Bobek²⁸⁾과 Hartke²⁹⁾ 등이 Vidal de la Blache의 “生活形態集團”(genres de vie)에서 社會的 集團의 地理的 區分原理를 찾아면서 經驗的 研究結果들을 바탕으로 社會地理學(sozialgeographie)의 骨格을 세워 나가기 始作하였다.

여기에서 北美의 시카고學派를 中心으로 한, 特히 都市地理學 分野에 새로운 活力을 준, 社會一人文生態學의 接近方法과³⁰⁾ Christaller의 中心地理論 및 Bobek의 人間生活領域의 空間的 組成에 對한 概念으로 始作된 機能論的 接近方法이 또한 社會地理學 成立의 한 路徑이 役割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이들 接近方法이 機能의 遂行者로서의 人間集團의 活動이 空間構造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小홀히 한 點에서는 아직 社會地理學의 概念 構成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空間을 ‘社會的 機能的 組織’으로 보는 社會生態學의 觀點이나 ‘人間の 活動範圍’를 問題로 提起한 것은 이미 社會地理學의 成立에 先導的 役割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obek에 依하면 社會地理學의 研究는 첫째 空間的 社會的 構造 究明(空間적으로 作用하는 人間集團을 分類區別하고 그 集團의 地域의 分布를 밝힘), 둘째 각 社會集團의 空間的 機能 및 過程의 體系 究明, 셋째 이에 따른 空間構造를 究明하는 세가지 主要課題를 包含한다. 이를 바탕으로 Schaffer는 社會地理學을 “人間集團 및 社會가 遂行하는 存在基本機能들(Daseinsgrund funktionen)의 空間的 組織形態와 空間形成의 過程(prozeß)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定義한다.³¹⁾ 여기서 말하는 存在基本機能이란 空間적으로 行해지는 人間活動의 範疇를 의미하는 것으로 “共同生

活”(in gemeinschaften leben), “居住”(wohnen), “勞動”(arbeiten), “給養”(sich versorgen), “教育”(sich bilden) 및 “餘暇活動”(Freizeit verhalten)의 여섯 가지 主要側面을 가진다. 이는 社會地理學의 內部 시스템에 指標가 되는 概念으로, 人間社會의 모든 階層에 關係되매 統計的으로 調査가 可能하고 空間的, 時間的으로 測定이 가능한 活動들이며 이들 各 機能間에는 何等的 階層的 構造를 想定하지 않는다.³²⁾

序頭에 言及한 바와 같이 社會地理學이 地理學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對해서는 아직 學者들 간에 상당한 異見이 있다. Bobek, Hartke를 中心으로 한 Wien-München學派에서는 社會地理學을 總論的 人文地理學 全般에 作用하는 社會的 힘(Sozialkräfte)에 關한 學問으로 보려는 데 比해, 이를 단지 人文地理學 또는 經濟地理學 內에서 獨特한 觀點을 갖는 한 分野로 보려는 立場³³⁾이 그것이다.

(2) 社會地理學의 空間概念

社會地理學의 位置와 役割에 對한 相異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傳統的 人文(文化)地理에 對해 갖는 特徵은 그 接近方法에 있어 새로운 空間概念의 導入에 있다.

社會地理學에서의 空間은 人間集團의 相異한 場所의 行動 至向이 이루는 結果이며 이는 다시 ‘人間集團의 活動範圍(Aktionsreichweite)로 壓縮된다. 人間의 行動樣式이 變하면—그것이 集團自體의 屬性의 變化이건 外的인 決定要因(예: 技術, 生活水準, 發展段階, 規範 등)이건—이에 따라 各集團의 空間活動의 範圍도 달라지고 結果的으로 空間構造에 變化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 人間行動의 結果로서의 空間構造 혹은 空間構造의 變化는 다시 決定狀況에 作用하여 相異한 行動樣式을 招來한다(Rückkoppelung). 이러한 概念體系

27) cf. Sorre, M., 1957, *Rencontres de la Géographie et de la Sociologie*, Paris.

George, P., 1966, *Sociologie et Géographie*, Paris.

Derrau, M., 1961, *Précis de Géographie Humaine*, Paris.

28) Bobek, H., 1948, op. cit.

29) Hartke, W., 1959, “Gedanken über die Bestimmung von Räumen gleichen sozialgeographischen Verhaltens,” *Erdkunde*.

30) cf. Park, R.E., E.W. Burgess & R.D. McKenzie, 1925, *The city*, Chicago.

31) Schaffer, F., 1968, “prozeßhafte Perspektiven sozialgeographischer stadtforschung, erläutert am Beispiel von Mobilitätserscheinungen,” *Zum Standort der Sozialgeographie*, hrsg.v.k. Ruppert, Münchener Studien zur Sozial- u. Wirtschaftsgeographie, 4.

32) Maier, J., R. Paesler, K. Ruppert, F. Schaffer, 1977, *Sozialgeographie*, Braunschweig.

33) cf. Otremba, E., 1961, “Die Gestaltungskraft der Gruppe und der Persönlichkeit in der Kulturlandschaft,” *Dt. Geographentag*, Köln.

는 空間을 社會와 方法論上 同一한 次元에 올려 놓고 볼 수 있게 한다는 點에서 特히 意義를 갖는다.

上述한 空間概念을 자세히 分析하면 社會地理學的 空間概念에 두 가지 서로 相關된 側面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하나는 構造的(strukturell) 側面으로 地域的으로 相異한 社會構造와 그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나는 各 集團의 存在基本機能 遂行의 場所의 樣狀을 意味하며 다른 하나는 過程的(prozessual)인 것으로 그 構造的 새로운 成立 乃至 變化의 過程(prozeß)을 意味한다.

空間概念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 集團의 概念도 이에 따라 家族, 氏族, 宗教集團等 自然의 生活單位(natürlichen Lebenseinheiten)와 會社, 組合等 特殊目的團體(spezifische Zweckverbände)등 社會學的 集團概念보다 生活形態集團(Lebensform Gruppe), 行動集團(Verhaltens Gruppe), 혹은 活動空間集團(aktionsräumliche Gruppe) 등 空間에 關聯된 集團概念이 試圖되고 있다.

以上 簡略하게나마 社會地理學에서 보는 人間集團의 活動範圍로서의 空間(Aktionsraum, Aktivitätsraum)의 內容을 살펴보았다. 이를 前章에 敍述한 空間概念의 範疇에서 본다면, 네 번째 計量的 概念의 限界性を 克服하기 爲한 試圖라는 點에서 大분히 다섯 번째의 社會的 空間概念의 範疇에 屬한다고 하겠다.

(3) 適用의 實際 — 給養機能

다음에 筆者는 前述한 社會地理學的 空間概念을 存在基本機能의 하나인 給養(Versorgung)에 適用하여 効用性を 살펴 보기로 한다.

給養의 空間的 構造에 對한 分析的 接近은 Christaller의 中心地理論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商品 및 用役(Service, Dienstleistung) 供給의 場所로서 都市의 分布 및 그 階層的 秩序에 대한 規則性を 모델화한 그의 中心地體系가 給養을 中心으로 空間構造를 밝히는데 劃期的인 出發點을 마련했다는 事實은 再論할 必要로 하지 않는다. 本稿에서는 그러나 그 內容이나 効用性を 詳述하는 代身 오히려 그 限界性を 批判함으로써 空間概念의 새로운 傾向이 갖는 可能性을 살펴

고자 한다.

Christaller 모델의 主軸을 이루는 給養原理(Versorgungsprinzip)는 우선 最小限의 給養을 前提로 하며, 둘째 同質的 經濟地域을 假定하고, 셋째 均等한 社會構造를 假定한다. 이러한 制限들은 모델수립에 있어 일반화(Generalisierung)와 簡略化(Vereinfachung)를 爲하여 不可避한 附隨條件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로 因해 陳述能力의 確率이 모델자체의 유용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떨어진다면 의미가 적을 것이다. Christaller의 모델은 실제 적용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Lösch, Isard 등에 의해 補完修正된 중심지 체계모델은 特히 Berry와 Garrison³⁴⁾이 “商品 및 用役의 到達範圍”(reach of goods and services, Reichweite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및 “限界人口”(threshold population, Schwellen bevölkerung)의 概念을 도입함으로써 그 理論的 根據를 明瞭히 하는데 功獻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批判의 對象이 되는 制限들, 그중 特히 ‘同質的인 社會構造’라는 假定을 脫皮하지 못함으로써 모델의 유용성을 크게 向上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中心地理論은……, 結局 都市(Stadt)와 村落地域(Land)의 마주 서는 關係라는 思想에 基礎한다.”³⁵⁾고 볼 때 그 空間的 構造의 研究에는 都市와 村落地域의 兩쪽 모두가 調査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方面 研究의 大部分이 都市 即 給養의 供給者側에 그 對象을 局限시킴으로써 中心地論에 關한 研究은 都市의 中心性 決定이나 階層시스템의 구멍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즉, 供給者側 一邊倒의 觀點에서는 運送費負擔에 根據한 商品의 到達範圍가 理論的 根據가 되기 때문에 이에 對해 需要者側에서 보는 立場인 人間活動의 到達範圍(Aktionsreichweite)가 全然 考慮되지 않는다.

中心地가 아닌 周邊地域(Umland)이 中心地理論의 研究對象으로 注目받기 始作한 것은 1950年代 以後의 일이다.

“經驗的 周邊地域 調査方法(empirische Umland Methode)은 中心地研究의 다른 方法과는 달리 周邊地域에서의 野外調査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34) Berry, B.J.L. & W.L. Garrison, 1958, “A note on central place theory and the range of a good,” *Economic Geography*, 34, pp. 304~11.

35) Bartels, D., 1968, “Zur wissenschafts theoretischen Grundlegung einer Geographie des Menschen,” *Beiheft z. geogr. Zeitschrift*, 19, p. 6.

方法은 都市의 中心地機能이 外部地域으로 부터 利用될 때 意味를 갖는다는 基本觀點에 바탕을 둔다.”³⁶⁾ 이러한 證據과는 그 觀察의 方向이 逆轉된 觀點에 따른 接近方法은 特히 大地域의 適用에 있어 상당히 價値있는 結果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것이 大部分의 經驗的 研究에서 中心地에 所屬되는 支配의 勢力圈(Einzugsbereich)을 區分하기 爲한 手段³⁷⁾으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點에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思想, 즉 各 人口集團에 따라 相異한 活動距離를 갖고 이루어지는 中心地關係 또는 中心地指向(Zentrenausrichtung)을 研究의 中心으로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換言하여 中心地體系에 있어 階層構造나 勢力圈의 內容은 中心地 쪽에서 볼 때 商品의, 周邊地域쪽에서 볼 때 人間活動의 到達範圍가 서로 합쳐져 作用한 結果로 구성되는 만큼 중심지 모델의 實質的 陳述能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前述한 社會地理學的 空間概念의 導入으로 後者側 觀點을 補強하는 것이 不可避하다고 본다.

中心地理論에 근거한 社會地理學的 研究의 對象은 따라서 첫째 中心地 設備(zentrale Einrichtungen)의 把握, 둘째 中心地 機能 및 機能的 勢力圈의 記述, 셋째 社會的 集團의 中心地에 對한 空間의 行動樣式의 分析이란 세 가지 主要 問題를 包含한다고 보겠으며, 이들 各 問題에의 接近은 서로 獨立된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社會的 空間의 概念이란 同一한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最近 이러한 觀點에서의 經驗的 研究가 試圖되고 있는 것은³⁸⁾ 위에 言及한 內容에 關聯하여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即 筆者는 이것을 機能論的 地理學이 計量的 方法을 통해 이룩한 지금까지의 可히 淸明할 만한 業績을 그것이 갖는 限界性을 克服하고 더욱 發展할 수 있는 하나의 可能性으로 보

고 싶은 것이다.

3. 結 論

地理學을 指稱하여 흔히 空間科學(Raumwissenschaft)라고 한다.³⁹⁾ 이 말은 한편으로 空間이 地理學의 中心概念임을 強調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內容이 嚴密히 規定되지 않은 채 막연히 時間科學(Zeitwissenschaft)에 對比하여 使用된 말이기도 하다. 地理學이 갖는 內部的 複數性 혹은 方法論的 二重性의 問題는 이와 같이 막연히 그 研究對象을 空間에 限定하는 것만으로는 克服될 수가 없다.

地理學이 하나의 獨立된 科學으로서의 單一性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專攻內外部 各 分野間의 間隔이 專攻外部의 人점과학과의 間隔보다 密接하게 連結되어야 하며 이것은 各 分野間에 對話의 通路가 열려져 있을 것을 前提로 한다. 즉 서로의 立場을 同一한 方法論的 水準에 올려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概念의 客觀的 規定은 重要한 先決問題가 되며 그 중에서도 空間概念의 경우는 그 比重이 매우 크고도 시급하다.

本稿에서는 空間概念의 여러 側面을 주로 人文地理學의 研究傾向과 결부하여 發達史的으로 考察하였고 그 有用性을 살펴보았다. 筆者는 이들 다섯 側面의 空間概念中 特히 그 네 번째의 地表의 延長으로서의 空間概念이 그와 結付된 計量的 分析方法과 더불어 地理學에 있어 研究方法의 客觀化에 이바지해 온 事實에 留意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所謂 機能論的 地理學의 方法은 人間集團의 相異한 空間活動의 原因 및 結果로서의 空間構造의 側面을 소홀히 하는 데서 經驗的 社會科學으로 발전하는 데 限界를 갖게 된다.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려는 새로운 試圖로 人間集團의

36) Kluczka, G., 1970, "Zentrale Orte und zentralörtliche Bereiche mittlerer und höherer Stu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orsch. z. Landeskunde*, p.170.

37) 消費者의 中心地 指向이 多邊化되어 있고(Mehrfachorientierungen) 이것이 또한 社會集團마다 相異하기 때문에 이 경우 단지 '優勢한 勢力圈'의 區分에 이를 뿐이며 소위 境界地域(Grenzraum)의 問題는 그냥 남는다. 拙稿.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駱山地理 2, 1971)에서도 이 問題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38) cf. Murdie, R.A., 1965, "Cultural differences in consumer travel," *Economic Geography*.

Ray, M.D., 1967, "Cultural differences in consumer travel behavior in eastern Ontario," *Canadian Geographer*.

Seger, M., 1972, "Der Raum Mödling. Siedlungsagglomeration im Süden von Wien. Sozial wirtschaftliche Analyse und landeskundliche Einführung," *Diss. Univ. Wien*, 69.

39) Hettner, A., op. cit., p.127.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Chicago-London, p.81.

空間活動을 重視하는 社會地理的 空間概念을 筆者는 現時點에서 하나의 새로운 可能性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마지막으로 社會地理學的 空間概念의 有用性을 살펴보고자 이를 存在基本機能의 하나인 給養活動에 적용하여 그 概念構成의 한 단면을 討論하였다. 特別히, 商品 및 用役의 到達範圍 및 限界人口의 概念을 理論的 基礎로 하는 古典的 中心地모델에 있어 人間集團의 活動範圍가 一律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弱點은 社會地理的 空間概念의 導入을 通해 적어도 概念上은 모델의 陳述能力을 確率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게 됨을 보았다. 勿論 社會地理學的 空間概念은 그것이란 接近方法의 核心的 要素로 活用되기 위해 아직 많은 檢定단계를 거쳐야 하며, 특히 이 개념의 操作化에는 많은 經驗的 研究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注意해야할 點은 前述한 네 번째 (choristisch-chorologische) 공간개념과 다섯 번째 사회지리학적(sozialgeographische) 공간개념이 相互 排他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計量的 空間概念에 의해 樹立된 모델

은 人間의 空間的 活動에 關聯된 變數들을 도입함으로써, 逆으로 社會地理的 空間構造는 이를 計量的으로 操作可能(operierbar)하게 發展시킬 때 두 概念構成間에는 所謂 內容있는 地理學으로의 統合의 可能性이 있는 것이며 나아가 地理學의 複數性 問題도 克服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韓國地理學의 問題點으로 '西歐, 特別히 北美의 工業·都市·社會의 地域構造의 모델이 韓國과 같은 文化的, 社會的 背景을 전혀 달리 하는 傳統社會의 地域研究에 直接 適用될 수 있는냐'는 물음을 對한다. 相異한 社會構造와 發達力學的 面(Entwicklungsdynamik)에서 相異한 人口集團의 相異한 空間活動樣式(räumliche Verhaltensweise)이 考慮될 때 우리는 이 물음에 좀더 具體的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即 우리가 當面한 方法論的 課題는 社會的 變數가 空間構造와 그 發達過程에서 어떻게 서로 作用하고 있나를 밝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序頭에 인용한 '雜學으로서의 地理學'이 '空間科學'으로서의 基本觀點(Grundperspektive)을 明瞭히 하고 現代科學으로 定礎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西獨 Kiel 大學 博士過程—

Zum Problem des Raumbegriffes in der Geographie

Woo ik Yu*

Zusammenfassung

Die Geographie wird häufig als Raumwissenschaft bezeichnet. Obwohl der Raum unumstritten den zentralen Begriff der Geographie bildet, ist sein genauer Definitionsinhalt bis heute umstritten. Es gibt zwar eine ganze Reihe von Definitionsversuchen, die mit verschiedenen methodischen Ansätzen verknüpft sind, jedoch trägt diese Vielfalt nicht gerade zur Einheit des Faches bei. Ist jedoch eine Wissenschaft bemüht, ihre Einheit zu erhalten, so ist sie darauf angewiesen, sich auf einheitliche Definitionen ihrer Schlüsselbegriffe zu einigen. Im vorliegenden Beitrag versucht der Autor, die mit verschiedenen Forschungsansätzen, speziell im Bereich der Kulturgeographie, im Laufe der Entwicklung des aufgestellten Definitionen des Raumbegriffes zu sichten und zu klassifizieren:

1. kosmographische Periode der Geographie: Raum als wahrnehmbarer Teil der Erdoberfläche
2. beziehungswissenschaftliche Periode der Geographie: Raum als Umweltraum menschlicher Aktivitäten
3. morphologische Periode der Geographie: Raum als Kulturlandschaft
4. funktionale Periode der Geographie: Raum als quantitative Ausdehnung der Erdoberfläche
5. strukturell-prozessuale Periode der Geographie: Raum als Sozialraum
Die Einführung des Raumbegriffes als quan-

tifizierte Ausdehnung der Erdoberfläche verbunden mit objektiv nachvollziehbaren Methoden löste die Geographie aus ihrer früheren deskriptiven Phase und legte den Grundstein für eine Geographie als moderne analytische Wissenschaft. Besonders im Bezug auf räumliche Verteilung von Erscheinungen (choristischer Aspekt), räumliche Relationen (chorologischer Aspekt) und raumzeitliche Entwicklungen führte der Raumbegriff der funktionalen Periode ein hohes Maß an Logik in die Geographie ein, er berücksichtigte räumliche Verhalten der verschiedenen sozialen Gruppen. Aus diesem Grunde ist es schwer möglich, mit Hilfe dieses Begriffes die Raumstruktur in ihrer sozialgeographischen Dynamik zu erfassen.

Diesen sozialräumlichen Aspekten der Geographie versucht der Raumbegriff der strukturell-prozessualen Periode gerecht zu werden. Damit eröffnen sich sehr interessante Perspektiven, die allerdings mit Fragen der Sozialpsychologie, der Entscheidungslehre usw. teilweise den Rahmen der klassischen Geographie sprengen. Fruchtbarkeit des gruppen spezifischen Aktions räumlichen Begriff der Sozialgeographie in der Operationalisierung dieses sozialgeographischen Raumbegriffes steht die Geographie jedoch noch ganz am Anfang, es fehlt aus weiten Teilbereichen der Sozialgeographie fundierte empirische Untersuchungen. Ein möglicher Ansatz dieses sozialgeographischen Raumbegriffes wird vom Autor am Beispiel des menschlichen Versorgungsverhaltens demonstriert.

Da sich der quantitative Raumbegriff der

funktionalen Periode und der sozialgeographische Raumbegriff nicht gegenseitig ausschließen, sondern im Gegenteil ergänzen, sieht der Autor in einer Integration dieser beiden Raumbegriffe eine Chance zu einer notwendigen Vertiefung des Raumbegriffes und damit zu einer methodologischen Weiterentwicklung

der Geographie. Die Integration dieser beiden Raumbegriffe hat darüber hinaus den Vorteil, daß man durch Adaptation des sozialgeographischen Raumbegriffes an die Verhältnisse anderer Kulturkreise den geographischen Raumbegriff ohne Verlust an Gesetzmäßigkeit erweitern kann.